프로듀서 이치훈, 음악으로 전하는 '인생 화두'

1월 19일 '나란 역할의 연기' 발매
2010년 이후 7년 만 단독 싱글



사진제공=뉴아더스

신예 프로듀서 그룹 뉴아더스 이치훈(31 · 사진) 씨.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가 이목을 끌지만, 사실 음악에 대한 고집과 가치관이 그의 진면목이다. 유행에 따르기보단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그. 1월 19일, 그의 2번째 앨범이 7년 만에 찾아온다.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한 이치훈 프로듀서는 2006년 화요비의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요'로 데뷔했다. 이후 김종욱의 '언젠가 우리의 이 비가 그치면', 허니핑거식스의 '봄 다음 겨울', 이문세 15집 부타이틀곡 '뉴 디렉션' 등을 비롯해 KBS 드라마 '빅맨' 및 MBC 드라마 '빛나는 로맨스' OST 작업에도 참여했다. 현재는 (주)뉴아더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화요비의 오랜 팬이었던 그의 첫 작품이 화요비 노래라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10년 간 숱한 곡들을 써왔지만 아무래도 첫 작품에 가장 애착이 간다.

"곡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1시간 만에 쓴 가사에요. 8명 작사가가 경쟁했는데, 경험도 없고 어렸던 제가 화요비 노래의 작사를 맡게 됐다니 믿을 수 없었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풋내기 고등학생이 당대 최고 여가수의 곡을 썼다니 언뜻 천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밤새 작업실에 박혀있는 그를 보면 끝없이 노력하는 실력파임이 분명하다. 평소 말주변이 없는 그이지만 음악에 대해 얘기할 때만큼은 진지하고도 열정적이다.

"구태의연한 음악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 평균 350곡이 새로 쏟아지는데 잠깐 인기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통장에 돈은 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음악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듣고 버려지는 곡 말고, 계속 생각나는 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가 처음 음악을 시작한 곳이자 박효신 · 양파 · 화요비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몸담았던 '신촌뮤직'을 뛰어나와 2014년 직접 회사를 차린 이유도 마찬가지다.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곡 작업 전에 가수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감성과



서울대 작곡과 졸업해 2006년 데뷔
프로듀서 그룹 '뉴아더스' 소속
새 앨범에 자아에 대한 고민 담아
1000일 · 100일 기도하며 자아 성찰

성향을 파악하는 편입니다.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야 음악에 애착이 생기니까요."

7년 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앨범을 발표한 것도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이다. 앞서 3명의 가수에게 이 곡을 줬지만 모두 '맞지 않는 옷'이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노래하기로 마음먹었다.

1월 19일 발표되는 이치훈 프로듀서의 신곡 '나란 역할의 연기'는 영화 '트루먼 쇼'에서 영감을 받았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나'란 역할을 연기하며 사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구일까'란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아'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는 동안 분명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이번 노래에 담았습니다."

창창한 30대 초반의 청년이 사랑보다 인생에 대한 사색을 즐긴다니 의아했다. 하지만 곧 '불자로서의 이치훈'의 얘기를 듣고, 인생에 대한 그만의 철학과 가치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입대 전날 짐을 싸다 우연히 한글 금강경 소책자를 발견했고, 아무 생각 없이 군대에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몰래 앉아 금강경을 읽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방황했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며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는 제대 후 학교 근처에 있던 성불암을 찾았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6개월 간 그곳에서 살았다. 1000일 기도를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다.

"참선이든 명상이든 하루 3시간 씩 꼭 하자 마음먹었죠. 다라니경 독송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내 문제점을 알게 되고, 또 그 문제점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1000일 기도에 임하던 중 강박증이 찾아왔다. 기도하며 발견한 아집을 '해결해야한다' 생각하다보니 고통스러웠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망가질 것만 같았다고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고, 몸이 아플 거야'라고 생각하며 기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1000일 기도 회향 후 10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상(想)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100일 동안은 내 안에 내재된 의심과 불안,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1000일 기도와 100일 기도는 그의 내면 뿐 아니라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 '내가 왜 음악을 하지?'란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시절 클래식 하는 동기들을 따라 콩쿨에 나가 1등 하고, 유학도 갔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음악을 하는 학자처럼 학구열에 불탔을 뿐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음악을 좋아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치훈 씨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게 꿈이다. 곡을 통해 사람들과 사랑을, 인생을, 진심을 공감하고 싶다고. 숱한 고민이 묻어났던 지난 10년이 앞으로 그의 음악 인생의 주춧돌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 앨범 '나란 역할의 연기'는 1월 19일 정오 모든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3월엔 '나란 역할의 연기' 등 5곡이 수록된 미니앨범이 발매된다. **박아름 기자**

'건반의 求道者' 임현정을 만난다

2월 4일 예술의 전당서 리사이틀

클래식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인 24살에 베토벤 소타나 전곡 앨범을 발매한 불자 피아니스트 임현정<사진>이 한국 팬을 찾는다.

임현정은 오는 2월 4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침묵의 소리(Sound of Silence)'가 주제인 이번 공연에서는 임현정만의 강렬하고 독창적인 음악 해석이 담긴 연주를 만나볼 수 있다.

임현정은 이번 연주에서 슈만(R. Schumann)의 '사육제(Carnaval Op.9)', 브람스(J. Brahms)의 '8개의 피아노 소품(Klavierstucke Op.76)' 등을 연주한다. 또한 그가 집중 연구하는 프랑크(C. Franck)의 '전주곡, 코랄과 푸가



(Prelude, Choral et Fugue)'도 선보인다.

임현정의 연주가 울림이 있는 것은 작곡가의 작품, 사상과 일체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실제 임현정은 지난해 내한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베토벤을 공부하다보면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만난다. 여기서 더욱 몰입하면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됨을 느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임현정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최연소 입학'을 앞두고 출가를 생각할 만큼 돈독한 신심을 가졌다. 이는 그의 음악에도 나타난다. 지난해 4월 부산서 사대산인 성담 스님과 함께 한 '어둠에서 빛으로' 공연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과 불교 짓소리의 콜라보를 선보였다. 스위스 법계사 주지 무진 스님과의 인연도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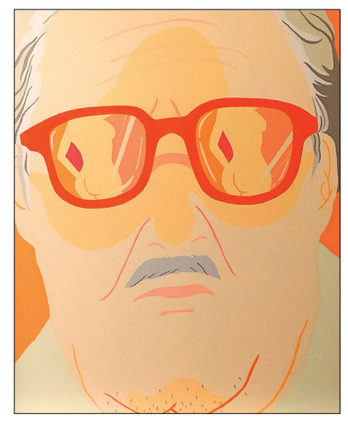
한편, 임현정은 국내 리사이틀을 필두로 프랑스 보르도, 툴루즈, 루앙 등에서 연주 및 마스터클래스 및 바렌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예정돼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권신홍 첫 개인전 '보이지 않는 빛'

2월 3일까지 탑골미술관서 열려

신인작가 권신홍의 첫 개인전 '보이지 않는 빛: 빛이 머무는 시간과 공간'이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서 2월 3일까지 열린다. 권신홍 작가는 평소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으로 노인의 일상을 경쾌하게 표현해, 지난해 탑골미술관서 진행한 신인작가 지원사업 단체전서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에는 빛과 색이 머무는 풍경, 사물, 인물에 대한 개성 넘치는 작품 약 15점이 소개된다. 아울러 전시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월 24일 오전 11시엔 작가의 작품이 인쇄된 도안에 색을 칠하며 마음을 힐링하는 '나를 찾는 시간, 누리에 컬러링'이, 2월 3일 오후 2시엔 캔버스에 노란색 아크릴 물감으로 작품



백일몽' 할아버지 65.1x53.0cm 캔버스 위에 아크릴채색 2016.

을 직접 그려보는 '노란색으로 금전운 업!'이 진행된다. (02)6220-8553 **박아름 기자**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CO.LTD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정
문의 전화 02-365-7747
오시는 길 :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 대불광빌딩 2층
www.mahayeon.com

천불천탑 황금사원의 부처님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11일(8대성지)
· 인도/네팔 15일
· 스리랑카 6일
·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티벳/부탄
· 티벳6일
· 티벳 하늘열차 8일
· 부탄-네팔 8일
· 동티벳 9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태항산-천계산-용산(208m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 청도-곡부-태산 6일 훼리크루즈
중국

라오스
· 라오스 6일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6일
· 베트남-캄보디아 6일
베트남/캄보디아

태국/대만/홍콩
· 태국 5일
· 대만 5일
· 대만-홍콩 5일

· 동유럽4개국 9일
· 동유럽-발칸 6개국 9일
동유럽/발칸